

한글

교사용 특별부록

3·2

초등 국어

교재 자료

- 실전 단원 평가 (국어+국어 활동)
『국어』와 『국어 활동』에서 평가에 꼭 나오는
핵심 문제를 뽑아 구성
- 실전 단원 평가 (국어)
『국어』에서 평가에 꼭 나오는
핵심 문제를 뽑아 구성

모바일 / 웹 수록 자료

- 단원 평가
평가에 자주 나오는 중요 문제로 구성
- 서술형 평가
평가에 자주 나오는 서술형 문제로 구성
- 학기말 평가
전 범위 2회 제공

모바일 / 웹 연결




www.visang.com/book

- 선생님을 위한 다양한 자료는 '모바일/웹 연결 큐아르(QR) 코드' 또는 '비상교육 누리집(www.visang.com/book)'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선생님께 제공하는 자료를 출판에 요청하면 CD 형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논술형

6 다음 인물의 말과 행동을 보고, 자신이 미미라면 어떻게 했을지 쓰시오.

언니랑 같이 다니고 싶지 않아!



미미

미미는 학교 친구와 선생님도 언니 자두에게만 관심을 기울이자 화가 납니다.

7~8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부벨라는 거인이예요. 모든 사람이 부벨라를 무서워했는데 이 자그마한 목소리의 주인공만은 예외였어요.

부벨라는 발 근처 땅바닥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땅속에서 지렁이 한 마리가 고개만 빼꼼히 내밀고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부벨라가 말을 시작했어요.

“난 부벨라야. 네 이름은 뭐니?”

“이제야 뭔가 제대로 되네. 나는 지렁이라고 해.”

㉡ “너는 내가 무섭지 않니?”

“왜 너를 무서워해야 하는데?”

“내가 너보다 훨씬 덩치가 크니까.”

부벨라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다 있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나보다 커. 만약 나보다 큰 것들에게 말 붙이기를 겁냈다면 난 계속 입을 다물고 살아야 했을걸.”

7 이 글을 읽고 친구들과 묻고 답하기 놀이를 할 때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쓰시오.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은 누구누구인가요?

()

8 다음 장면의 부벨라에게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를 찾아 기호를 쓰시오.



- ㉠ 쪼그리고 앉아서 놀란 표정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 ㉡ 발을 동동 구르며 우는 표정으로 낮은 목소리로
- ㉢ 똑바로 서서 활짝 웃는 표정으로 큰 소리로 외치며

()

국어 활동

9 현장 체험학습 장소가 마음에 들 때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각각 어떤 표정, 몸짓, 말투로 말하면 좋을지 선으로 이으시오.

(1) 장소가 마음에 들 때: “정말? 와, 신난다!”

손을 번쩍 들며 신나는 표정과 큰 목소리로

(2) 장소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정말? 에이, 실망이다.”

입을 삐죽 내밀며 못마땅한 표정과 작은 목소리로

10 ‘이야기 극장’ 놀이를 할 때 이웃 사람이 어떤 표정으로 말하면 좋을지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형: (깜짝 놀라 벧단을 떨어뜨리며) 아우야, 네가 벧단을 옮겨 놓았구나!
 아우: (놀라서 뛰어가며) 형님, 형님도 벧단을 옮겨 놓으셨군요.
 이웃 사람: (㉠) 저렇게 의좋은 형제는 또 없을 거야!

()

1 다음 그림의 상황에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를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

(1)



㉠ 다정한 말투로 손을 흔들며 말한다.

(2)



㉡ 깜짝 놀란 목소리로 미안해하며 말한다.

2 다음 상황에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

미안하다고 말할 때

- ① 웃지 않고 말한다.
- ② 진심을 담아서 말한다.
- ③ 장난치듯 가볍게 말한다.
- ④ 비꼬듯이 말하지 않는다.
- ⑤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한다.

서술형

3 표정, 몸짓, 말투에 주의하며 말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한 가지 더 쓰시오.

• 듣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다.

• _____

4 장금이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며 알맞은 표정을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쓰시오.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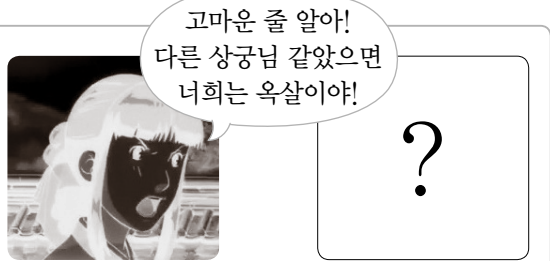
- ㉠ 눈물을 글썽이며
- ㉡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리며
- ㉢ 눈썹을 찡그리고 입을 다물며



▲ 처음으로 수라간 상궁을 보는 장면

()

5 다음 인물의 말을 들은 장금이의 마음과 표정, 몸짓, 말투를 표현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찾아 ×표를 하시오.



▲ 강아지 때문에 국수를 쏟아 장금이가 꾸중을 듣는 장면

- (1) 마음: 죄송한 마음 ()
- (2) 표정: 활짝 웃는 표정 ()
- (3) 몸짓: 고개를 숙이며 ()
- (4) 말투: 낮고 작은 목소리로 ()

1 아는 내용이나 겪은 일과 관련지어 글을 읽으면 좋은 점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글의 내용을 기억하기 쉽다.
- ② 글의 내용에 더 흥미를 느끼게 된다.
- ③ 글의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④ 글을 읽으면서 그 모습을 잘 상상할 수 있다.
- ⑤ 겪은 일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꾸며 낼 수 있다.

2~3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금부터 과학 실험 안전 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선생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에는 과학 실험을 하지 않습니다. 과학실에는 조심히 다루어야 할 실험 기구와 위험한 화학 약품이 많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실험 기구나 화학 약품을 다루어야 사고가 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에는 과학 실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과학실에서는 절대 장난을 치면 안 됩니다. 과학실에는 깨지기 쉽거나 위험한 실험 기구가 많습니다. 장난을 치다가 유리로 만든 실험 기구가 깨지면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생겨 이 유리 조각에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다. 또 장난을 치다가 알코올램프가 바닥에 떨어지면 과학실에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이 글에 나온 과학 실험 안전 수칙의 내용을 정리해 쓰시오.

(1) 첫째	
(2) 둘째	

3 이 글을 읽고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이나 새롭게 안 내용을 쓰시오.

4 다음 글에 나오는 과일과 관련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 ○표를 하시오.

밤은 제사상에서 빠질 수 없는 과일이에요. 정월 대보름이 되면 밤이나 잣이나 땅콩이나 호두를 깨물어 먹는 풍습이 있어요. 정월 대보름에 먹는 딱딱한 과일을 부럼이라고 해요. 우리 조상은 부럼을 깨물면 이도 튼튼해지고 부스럼도 안 생기고 더위도 타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 (1) 밤은 제사상에서 빠져도 되는 과일이에요. ()
- (2) 정월 대보름에 먹는 부드러운 과일을 부럼이라고 해요. ()
- (3) 우리 조상은 부럼을 깨물면 이도 튼튼해지고 부스럼도 안 생기고 더위도 타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

5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글쓴이는 글 전체 내용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내용을 () (으)로 정하기 때문에 ()을/를 보면 무엇을 쓴 글인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 ()

1-3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닭싸움 놀이는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 두 손으로 잡고, 다른 다리로 균형을 잡아 깨금발로 뛰면서 상대를 밀어 넘어뜨리는 놀이입니다.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고 놀이 방법이 간단해 요즘도 어린이는 물론 청소년과 어른도 즐기는 놀이입니다.

‘닭싸움’은 두 사람이 겨루는 모습이 닭이 싸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닭싸움 놀이는 한 발로 서서 하므로 ‘외발 싸움’, ‘깨금발 싸움’이라고도 부르고, 무릎을 부딪쳐 싸운다고 해서 ‘무릎 싸움’이라고도 부릅니다. 닭싸움 놀이는 두 명이 할 수도 있고 여러 명이 할 수도 있습니다.

1 닭싸움 놀이의 다른 이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 가지 쓰시오.
()

2 이 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

- ㉠ 닭을 먹었던 경험을 떠올리며 읽는다.
- ㉡ 닭싸움 놀이한 경험을 떠올리며 읽는다.
- ㉢ 전통 놀이 책에서 닭싸움 놀이에 대해 읽은 내용을 떠올리며 읽는다.

()

논술형

3 이 글을 읽고 새롭게 안 내용을 쓰시오.

4-5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첫째, 갯벌은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는 장소입니다. 갯벌에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면서 생물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듭니다.

㉡ 둘째, 어민들은 갯벌에서 수산물을 키우고 거두어 돈을 벌니다. 어민들은 갯벌에서 조개나 물고기, 낙지 따위를 잡아 팝니다.

㉢ 셋째, 갯벌은 육지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을 분해해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갯벌은 겉으로는 그냥 진흙탕처럼 보이지만 작은 생물이 갯벌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 넷째, 갯벌은 기후를 조절하고 홍수를 줄여 주는 역할을 합니다. 갯벌 흩은 물을 많이 흡수해 저장했다가 내보내는 기능을 합니다.

㉤ 갯벌은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장소입니다. 소중한 갯벌을 잘 보존해야겠습니다.

4 이 글을 읽고 중심 생각을 찾는 방법을 말한 것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표를 하시오.

문단의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을/를 찾아보고 중심 생각을 간추린다.

5 이 글의 중심 생각은 무엇입니까? ()

- ① 갯벌은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는 장소이다.
- ② 어민들은 갯벌에서 수산물을 키우고 거두어 돈을 번다.
- ③ 갯벌은 기후를 조절하고 홍수를 줄여 주는 역할을 한다.
- ④ 갯벌이 주는 좋은 점을 알고 갯벌을 잘 보존해야 한다.
- ⑤ 갯벌은 육지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을 분해해 좋은 환경을 만든다.

6~8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날씨를 나타내는 토박이말

㉠ 계절별로 날씨와 관련이 있는 토박이말을 알아보자. 토박이말은 우리말에 본디부터 있던 말이나 그것에 더해 새로 만들어진 말이다. 다른 말로 순우리말, 고유어라고도 한다. 옛날부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만들어 써 오신 말이 토박이말이다. 이 가운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날씨를 나타내는 말도 많은데 어떤 말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 이처럼 계절에 따라 알고 쓰면 좋은 토박이말이 많다. 우리가 우리말의 맛을 배우고 익혀 제대로 쓰는 일에 더욱 힘을 쏟을 때, 더 아름답고 넉넉한 우리말과 우리글을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6 다음 중 문단 ㉠의 중심 문장은 무엇입니까? ()

- ① 계절에 따라 알고 쓰면 좋은 토박이말이 많다.
- ② 계절별로 날씨와 관련이 있는 토박이말을 알아보자.
- ③ 토박이말은 다른 말로 순우리말, 고유어라고도 한다.
- ④ 토박이말은 우리말에 본디부터 있던 말이나 그것에 더해 새로 만들어진 말이다.
- 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날씨를 나타내는 말도 많은데 어떤 말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서술형

7 이 글의 제목과 관련해 글쓴이의 생각이 무엇인지 쓰시오.

8 이 글에 나오는 낱말 '알다'와 서로 뜻이 반대인 낱말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

알다	·	① 같다
		② 모른다

9~10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다음으로, 옛날에는 사람들이 성별에 따라 다른 옷을 입었지만 오늘날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옷을 입는다. 옛날에 남자는 아래에 바지를 입고 위에는 저고리와 조끼, 마고자를 입었다. 그리고 춥거나 나들이를 갈 때에는 겉에 두루마기를 입었다. 여자는 아래에 속바지와 치마를 입고 위에는 저고리를 입었다. 여자도 두루마기를 입지만 남자가 입는 두루마기와 모양이 달랐다. 오늘날에는 남자와 여자의 옷차림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대신 각자 좋아하는 옷을 입기 때문에 옷차림이 사람에 따라 다르다.

㉡ 마지막으로, 옛날에는 자연에서 얻은 실로 짠 옷감으로 옷을 만들었지만 오늘날에는 합성 섬유로 옷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우리 조상은 식물이나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 옷감을 얻었다. 식물에서 뽑은 실로 짠 옷감으로는 삼베, 모시, 무명 따위가 있고, 누에고치에서 뽑은 실로 짠 옷감으로는 비단이 있다. 오늘날에는 옛날처럼 자연에서 얻은 실로 옷감을 짜기도 하지만 공장에서 만든 합성 섬유에서 옷감을 더 많이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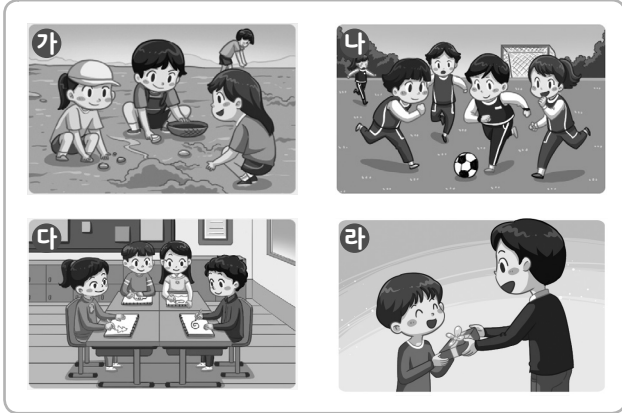
9 옛날에 옷을 만들 때에 사용한 옷감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

- | | |
|---------|------|
| ① 삼베 | ② 모시 |
| ③ 무명 | ④ 비단 |
| ⑤ 합성 섬유 | |

10 이 글을 읽고 나서 더 알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쓰시오.

()

1~2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1 그림에 나타난 경험한 일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방송국 체험을 했다.
- ② 신나게 축구를 했다.
- ③ 아버지께 선물을 받았다.
- ④ 친구들과 갯벌 체험을 했다.
- ⑤ 책을 읽고 난 뒤에 독서 그림을 그렸다.

2 그림과 같이 자신이 겪은 일 가운데에서 기억에 남는 일을 한 가지 떠올려 쓰시오.
()

3 기억에 남는 일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 ㉠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떠올린다.
- ㉡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있었던 일인지 정리한다.
- ㉢ 그 일을 본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정리한다.

()

4~5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혁이가 열이 많이 나는구나. 아무래도 장염에 걸린 것 같다. 이번 가을에만 두번째네.”
아빠께서 걱정스럽게 말씀하셨다. 주혁이는 얼굴을 찡그리며 힘들어했다. 아빠께서 병원에 갈 준비를 하시는 동안 나는 주혁이 옆에 앉아 있었다.
“누나, 나 아파.”
주혁이가 눈물이 그렇그렁한 얼굴로 말했다.
“병원 다녀오면 금방 나올 거야.”
나는 주혁이의 이마에 차가운 물수건을 얹어 주었다.
마음이 아팠다. 동생이 얼른 나았으면 좋겠다.

4 다음은 이 글에서 띄어쓰기를 잘못된 부분입니다. 잘못 띄어 쓴 부분에 V표를 하고 바르게 띄어 쓰시오.

- (1) 이번 가을에만 두번째네.
→ ()
- (2) 주혁이가 눈물이 그렇그렁한 얼굴로 말했다.
→ ()
- (3) 마음이 아팠다. 동생이 얼른 나았으면 좋겠다.
→ ()

5 띄어쓰기를 바르게 하면 좋은 점을 두 가지 고르시오. (,)

- ① 글을 길게 쓸 수 있다.
- ② 읽는 사람이 편하게 글을 읽을 수 있다.
- ③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 ④ 전하고자 하는 뜻을 정확히 전할 수 있다.
- ⑤ 자신의 경험이나 알고 있는 내용과 관련지어 글을 읽을 수 있다.

6 인상 깊은 일로 쓴 글을 점검할 때 확인할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올바른 띄어쓰기를 했는지 점검한다.
- ② 있었던 일을 간단히 썼는지 확인한다.
- ③ 그때의 느낌을 잘 표현했는지 살펴본다.
- ④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에 대해 썼는지 살펴본다.
- ⑤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있었던 일인지를 썼는지 살펴본다.

7 다음 글에서 내용에 알맞은 설명을 선으로 이으시오.

국어 활동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반은 희망 목장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갔다. 희망 목장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피자과 치즈를 만들 수 있다. 학교에서 출발해서 시간이 흘러 드디어 목장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피자 만들기 체험장에 들어갔다.

- | | | | |
|--------------|---|-----|------|
| (1) 희망 목장으로 | • | • ① | 언제 |
| (2) 우리 반은 | • | • ② | 어디에서 |
| (3) 지난주 월요일에 | • | • ③ | 누가 |
| (4) 현장 체험학습을 | • | • ④ | 무엇을 |

8 글을 쓰고 고쳐쓰기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한 가지 더 쓰시오.

- 잘못된 띄어쓰기나 표현을 고칠 수 있다.

• _____

국어 활동

9 다음 그림의 상황에 알맞은 문장을 찾아 ○표 를 하시오.



- (1) 아기가오리를 보았다. ()
- (2) 아기가 오리를 보았다. ()
- (3) 아기 가오리를 보았다. ()

10 우리 반 소식지를 만들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 ()

- ① 다섯 가지 사건으로 모둠별 소식지를 만든다.
- ② 모둠별 소식지를 모아 우리 반 소식지를 만든다.
- ③ 지금까지 우리 반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본다.
- ④ 지금까지 우리 반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된 사진을 모으거나 그림을 그린다.
- ⑤ 지금까지 우리 반에서 있었던 일 가운데에서 기억에 남는 일 다섯 가지를 투표로 정한다.

- 1 기억에 남는 일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을 때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

기억에 남는 일	
㉠	
↓	
언제	5월
어디에서	학교 운동장
있었던 일	친구들과 공 굴리기, 장애물 달리기와 같은 운동을 했다.
생각이나 느낌	친구들과 함께 여러 가지 운동을 해서 즐거웠다.

- ① 친구들과 운동회를 함께한 일
- ② 친구들과 숲에 나무를 심은 일
- ③ 친구들과 아이스크림을 먹은 일
- ④ 친구들과 체험학습을 함께한 일
- ⑤ 친구들과 놀이 공원에 놀러 간 일

- 2 기억에 남는 일을 정리하면 좋은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띄어쓰기를 바르게 할 수 있다.
- ② 자신이 한 일을 되돌아볼 수 있다.
- ③ 기억에 남는 일을 글로 쓸 수 있다.
- ④ 기억에 남는 일을 자세하게 떠올릴 수 있다.
- ⑤ 어떤 내용을 말하거나 쓸지 점검할 수 있다.

- 3 자신이 경험한 인상적인 일을 글로 쓰는 방법 중 다음은 어느 과정에 해당하는지 쓰시오.

기호: 서연아, 너는 여러 가지 겪은 일 가운데에서 왜 동생이 아팠던 일을 골라서 글을 쓰려고 하니?

서연: 동생이 아팠을 때에는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었거든. 평소에 동생이 장난꾸러기처럼 보여서 밍기도 했는데 아프니까 잘못해 준 것이 생각나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그 마음을 써 보고 싶었어.

- 4 다음 중 띄어쓰기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낱말과 낱말 사이는 띄어 쓴다.
- ② 쉼표(.) 뒤에 오는 말은 붙여 쓴다.
- ③ 마침표(.) 뒤에 오는 말은 띄어 쓴다.
- ④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 사이는 띄어 쓴다.
- ⑤ '이/가, 을/를, 은/는, 의'와 같은 말은 앞말에 붙여 쓴다.

- 5 다음 문장을 바르게 띄어 쓰시오.

우정은예쁘게가꿀수록좋다.

()

6~7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논술형

6 그림과 같이 자신이 일 년 동안 경험한 일 가운데서 인상 깊은 일을 떠올려 보고, 그 일을 고른 까닭을 쓰시오.

(1) 인상 깊은 일: _____

(2) 그 일을 고른 까닭: _____

7 인상 깊은 일로 글을 쓸 때 제목을 정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인상 깊은 일을 그대로 제목으로 정한다.
- ② 글 내용과는 다른 새로운 내용을 제목으로 정한다.
- ③ 글을 읽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을 제목으로 정한다.
- ④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나타내는 내용을 제목으로 정한다.
- ⑤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제목으로 정한다.

8 자신이 쓴 글을 친구와 바꾸어 읽고 고쳐 쓸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르지 않게 말한 친구를 쓰시오.

진주: 있었던 일을 더 자세히 쓰면 좋을 것 같아.

서영: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를 써야 해.

호민: 띄어쓰기를 바르게 했는지도 확인해야 해.

상진: 읽는 사람인 친구들의 지식수준을 높여 주기 위하여 어려운 낱말을 사용하는 게 좋겠어.

()

9 우리 반 소식지에 쓸 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1월에 강아지를 입양한 일
- ② 3월에 새로 학원에 등록한 일
- ③ 8월에 가족과 바닷가에 간 일
- ④ 4월에 목장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간 일
- ⑤ 5월에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카네이션 꽃을 선물한 일

10 기억에 남는 일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모둠별 소식지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하며,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 자신이 맡은 사건을 표현할 때에는 (1) (),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그 일에 대한 생각이나 (2) ()을/를 나타낸다.

1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고, 코로 냄새 맡고, 손으로 만지면서 대상의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게 된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을 () (이)라고 합니다.

2 다음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을 찾아 ○표 를 하시오.



- (1) 웃고 있는 곰 인형 ()
- (2) 아기처럼 귀여운 곰 인형 ()
- (3) 편안히 앉아 있는 곰 인형 ()

3~4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 몸에
불덩이가 들어왔다.
—뜨끈뜨끈.
불덩이를 따라
몹시 추운 사람도 들어왔다.
—오들오들.

약을 먹고 나니
느릿느릿,
거북이도 들어오고
까무룩,
잠꾸러기도 들어왔다.

내 몸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내 몸이 아주 무거워졌다.

3 말하는 이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

- ① 감기에 걸렸다.
- ② 팔이 불에 데였다.
- ③ 뜨거운 불 옆에 앉아 있다.
- ④ 잠에서 깨어나 움직이고 있다.
- ⑤ 기어가는 거북이를 보고 있다.

4 문제 3번에서 답한 말하는 이의 상태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그래서
- ② 거북이도 들어오고
- ③ 잠꾸러기도 들어왔다.
- ④ 몹시 추운 사람도 들어왔다.
- ⑤ 내 몸에 / 불덩이가 들어왔다.

국어 활동

5 다음 노랫말을 읽고, 감각적 표현이 사용된 부분을 두 가지 찾아 쓰시오.

초승달아 초승달아 무엇이 되련?
꼬부랑 할머니 물바가지 되련다

초승달아 초승달아 무엇이 되련?
풀 베는 아저씨 낫이 되련다

- (1) ()
- (2) ()

1 대상을 감각적 표현으로 나타내면 좋은 점을 세 가지 고르시오. (, ,)

- ① 대상의 생김새만 표현할 수 있다.
- ② 대상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
- ③ 대상을 사실 그대로 설명할 수 있다.
- ④ 대상의 느낌을 재미있게 나타낼 수 있다.
- ⑤ 대상의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다.

2~3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내 몸에
불덩이가 들어왔다.
—뜨끈뜨끈.
불덩이를 따라
몹시 추운 사람도 들어왔다.
—오들오들.

약을 먹고 나니
㉠느릿느릿,
거북이도 들어오고
㉡까무룩,
잠꾸러기도 들어왔다.

내 몸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내 몸이 아주 무거워졌다.

2 '내' 몸에 불덩이가 들어왔다고 말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

- ① 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 ② 불이 켜진 난로 옆에 있기 때문에
- ③ 붉은색 옷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에
- ④ 감기에 걸려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 ⑤ 감기약을 먹어서 몹시 졸리기 때문에

3 서술형 ㉠'느릿느릿'과 ㉡'까무룩'을 빼고 읽을 때와 넣고 읽을 때,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쓰시오.

4~5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강가 고운 모래밭에서
발가락 움지락거려
두더지처럼 파고들었다.

지구가 간지러운지
굼질굼질 움직였다.

아, 내 작은 신호에도
지구는 대답해 주는구나.

그 큰 몸짓에
이 조그마한 발짓
그래도 지구는 대답해 주는구나.

4 이 시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을 두 가지 고르시오. (,)

- ① 내 작은 신호에도
- ② 이 조그마한 발짓
- ③ 강가 고운 모래밭에서
- ④ 지구가 간지러운지 / 굼질굼질 움직였다.
- ⑤ 발가락 움지락거려 / 두더지처럼 파고 들었다.

5 이 시의 말하는 이처럼 지구가 살아 있다고 생각한 경험을 쓰시오.

6~7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㉑ 엄마는 내 피아노 실력이 늘었다고 좋아했어요.

그럴 수밖에요. 난 블링크 아저씨가 돌아오면 세상 모든 색을 들려주려고 많이 연습했으니까요.

㉒ 투명 인간은 거실에 앉아 엄마와 얘기하고 있었어요.

얼굴을 봉대로 칭칭 감은 것이 책과 똑같았어요.

“에밀, 네 피아노 실력이 늘었다며?”

블링크 아저씨의 목소리였어요.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블링크 아저씨는 외국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안구를 기증받아 수술을 받고 돌아오셨어.”

엄마가 말했어요.

새하얀 침묵이 거실을 뒤덮었어요.

“한 달 뒤에 봉대를 풀 거야. 그러면 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드디어 볼 수 있겠지?”

아저씨가 말했어요.

그제야 난 알았어요.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요.

6 에밀이 피아노 연습을 많이 한 원인이 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

- ① 엄마의 말씀을 잘 듣기로 하였다.
- ②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이 즐거워졌다.
- ③ 블링크 아저씨를 놀라게 하고 싶었다.
- ④ 블링크 아저씨가 피아노 음을 맞추어 주었다.
- ⑤ 블링크 아저씨에게 세상 모든 색을 들려주고 싶었다.

7 이 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쓰시오.

8~9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천둥소리

하늘에 사는 아이들도
체육 시간이 있나 보다

우르르 쿵쾅,
운동장으로
뛰쳐나가는 소리

8 말하는 이는 천둥소리가 마치 무엇과 같다고 표현하였습니까? ()

- ① 커다란 북을 연주하는 소리
- ② 하늘에 사는 아이들의 목소리
- ③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의 소리
- ④ 체육 시간을 앞두고 두근대는 마음
- ⑤ 하늘 나라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뛰쳐나가는 소리

9 이 시를 통해 시 쓰는 방법을 떠올릴 때 알맞지 않은 것을 찾아 ×표를 하시오.

- (1) 짧은 글로 표현한다. ()
- (2) 감각적 표현을 사용한다. ()
- (3) 소리나 모양을 흉내 내는 말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

논술형

10 다음 대상 가운데에서 하나를 골라 대상에 대한 느낌을 노래하듯이 표현해 보시오.

구름 사과 강아지

(1) 대상	
(2) 대상을 떠올린 느낌	
(3) 노래하듯이 표현하기	

1-2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엄마: 진수야, 몸은 좀 괜찮아?
진수: 엄마, 어제보다 많이 좋아졌어. 내일은 학교에 갈 거야.
엄마: 그래.

나 (전화 벨소리)
수정: 여보세요?
진수: 수정이니? 나, 진수야. 수정아, 내일 준비물이 뭐야?
수정: 풀이랑 가위야. (뚝 끊는 소리)
진수: 그리고…….

1 대화 **가**와 **나**는 각각 어떤 상황인지 선으로 이으시오.

(1) 대화 **가** · · · ①

엄마가 진수에게 몸이 괜찮은지 물어보는 상황

(2) 대화 **나** · · · ②

진수가 수정이에게 전화로 준비물을 물어보는 상황

2 대화 **가**와 **나**로 보아, 대화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두 가지 고르시오. (,)


- ① 누구에게나 반말을 한다.
- ②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한다.
- ③ 자신의 기분만 생각해서 말한다.
- ④ 상대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듣는다.
- ⑤ 웃어른과 대화할 때에는 높임 표현을 사용한다.

3 다음 대화의 () 안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에 ○표를 하시오.

어머니: 할아버지 지금 뭐 하시니?
아들: 할아버지께서 사과주스를 (먹고 있어요 / 드시고 계세요).

4-5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승민아, 요즘 재미있게 읽을 만한 책을 한 권 소개해 줄래?



나 승민아, 요즘 무슨 책을 그렇게 재미있게 보니? 선생님에게 소개해 주렴.



4 그림 **가**와 **나**에서 승민이가 대화하는 대상은 각각 누구인지 쓰시오.

(1) 그림 **가**

(2) 그림 **나**

5 그림 **가**와 **나**에서 승민이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1) 그림 **가** · · ·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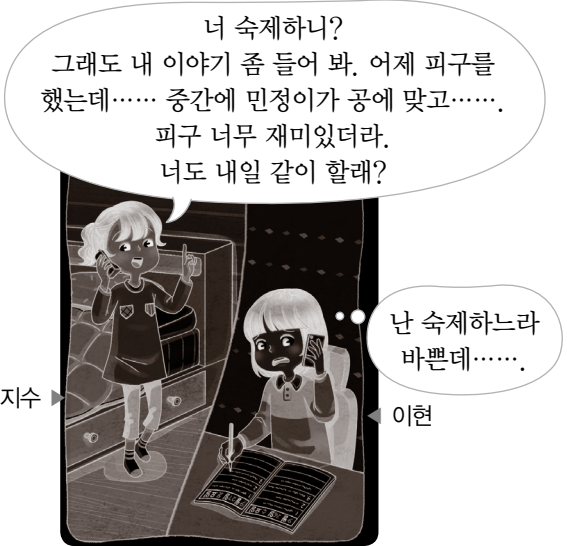
네. 이 책이 재미있습니다.

(2) 그림 **나** · · · ②

응. 이 책이 재미있어.

국어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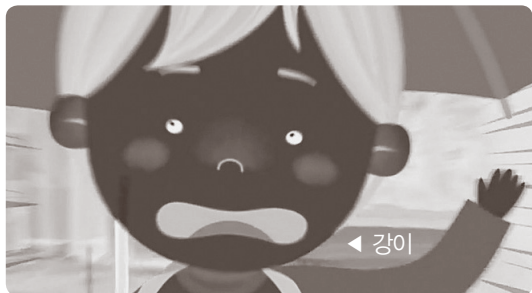
6 다음 대화를 볼 때, 지수에게 필요한 전화할 때의 바른 대화 예절은 무엇입니까? ()



- ① 상대의 상황 헤아리기
- ②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 ③ 공공장소에서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 ④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 ⑤ 상대의 얼굴을 보지 않고 이야기하므로 더 공손하게 말하기

논술형

7 다음 상황에서 강이에게 어울리는 표정, 몸짓, 말투를 쓰시오.



▲ 친구인 훈이가 차가 오는지 보지 않고 횡단보도로 뛰어 가다가 자동차에 치일 뻔한 모습을 보고 강이가 놀라는 상황

국어 활동

8 다음 상황에서 빈칸에 어울리는 표정, 몸짓, 말투를 찾아 ○표를 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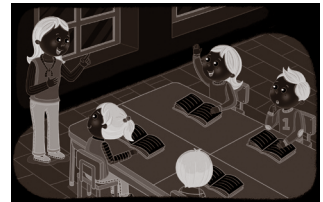
- (1) 크고 씩씩한 목소리로 ()
- (2) 짜증 나고 화나는 표정으로 ()
- (3) 미안해하며 걱정하는 목소리로 ()

9~10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생님: 이번 주 금요일까지 우리 주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조사해 오세요.

미나: 선생님, 주위 사람이면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선생님: 가족, 친척, 이웃 등 가까운 사람을 말한단다.



9 선생님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조사해 오라고 한 것을 쓰시오. ()

10 다음 상황을 역할놀이로 할 때 미나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할아버지께 어떻게 여쭙어보면 좋을지 직접 말하듯이 쓰시오.

미나가 할아버지께서 좋아하는 음식을 조사하는 상황



1-2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 진영이는 그림 **가**와 **나**에서 각각 어떻게 말해야 할지 쓰시오.

(1) 그림 가	
(2) 그림 나	

2 문제 1번의 답과 같이 같은 뜻이지만 형태가 다르게 말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

- ① 대화 상대가 다르기 때문에
- ② 대화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 ③ 대화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 ④ 대화하는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 ⑤ 대화하는 인원 수가 다르기 때문에

3 다음 대화에서 ()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에 ○표를 하시오.



4 다음 대화에서 빈칸에 들어갈 승민이의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응. 잘 모르겠어요.
- ② 응. 책을 사러 서점에 갔어.
- ③ 네. 책을 사러 서점에 갔어.
- ④ 응. 책을 사러 서점에 갔어요.
- ⑤ 네. 책을 사러 서점에 갔습니다.

5 전화 대화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

- ㉠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 ㉡ 전화를 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다.
- ㉢ “여보세요?”처럼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다.
- ㉣ 상대가 상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표현해야 한다.

()

6~8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예원이 언니: 여보세요?

수진: 예원아! 우리 내일 어디에서 만나서 놀기로 했지?

예원이 언니: (혼잣말로) 나는 예원이 언니인데……. 누구지?



나 (지하철 소리)

남자아이: (큰 목소리로) 하하! 그래. 너 이번 주에 뭐 하니? 우리 이번 주에 축구할래? 지난주에 비가 와서 축구를 하지 못했잖아.



6 대화 가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 ① 공공장소에서 큰 목소리로 통화하였다.
- ② 상대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무례하게 말하였다.
- ③ 상대의 상황을 헤아리지 않고 자신이 할 말만 하였다.
- ④ 전화를 건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상대가 누구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 ⑤ 상대가 할 말이 남아 있는데 전화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듣지 않고 갑자기 전화를 끊었다.

논술형

7 대화 가에서 수진이가 한 말을 전화 대화 예절에 맞게 바르게 고쳐 쓰시오.

8 대화 나에서 지켜야 할 예절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상대의 상황을 헤아려 본다.
- ② 공공장소에서는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 ③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간단히 말한다.
- ④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한다.
- ⑤ 상대의 얼굴을 보지 않고 이야기하므로 더 공손하게 말한다.

9 다음 상황에서 강이 역할을 맡은 친구는 어떤 말투로 말하면 좋을지 ○표를 하시오.



비 오는 날 강이는 검은색 옷을 입으려고 했는데 엄마께서 안전을 위해 노란색 옷을 입으라고 하셔서 억지로 노란색 옷을 입은 상황

(신나는 목소리 / 시무룩한 목소리)

논술형

10 다음 상황을 역할놀이로 할 때, 미나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해야 할 표정, 몸짓, 말투를 쓰시오.

미나: 참, 민철아! 너,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남동생: 에이, 누난 그것도 몰라?
 미나: 하하, 맞아. 우리 민철이는 통닭을 가장 좋아하지!

- 1 다음의 그림 ㉠과 ㉡를 보고 어떤 마음이 느껴지는지 생각하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와, 신난다! 고맙습니다.
정말 미안해. 빨리 나아가야 해.

- (1) 그림 ㉠: ()
(2) 그림 ㉡: ()

- 2 자신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본 경험을 말한 것이 아닌 것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

- ㉠ 전학을 가는 친구에게 보고 싶을 거라고 말했다.
㉡ 장난감 사용 설명서를 읽고 동생에게 알려 주었다.
㉢ 아침에 봉사하시는 녹색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다.
㉣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잘 풀려서 짝에게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

- 3~4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1교시는 사회 시간이었다. 우리 지역의 자랑 거리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우리 모둠의 발표자는 나였다. 앞 모둠의 발표가 거의 끝나 가자 나는 가슴이 쿵쿵쿵쿵 뛰기 시작했다.

‘어찌지? 실수하면 안 되는데…….’

㉡ 3교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 시간이다. 나는 여러 가지 악기를 잘 다루고 노래도 잘 부르는 편이다. 오늘 음악 시간에는 리코더를 연주했다. 내 짝 민호는 리코더 연주가 서툴다. 선생님께서는 민호가 리코더 연주하는 것을 보더니 내게 말씀하셨다.

“규리야, 네가 민호 좀 도와주렴.” / 나는 음악 시간 내내 민호의 리코더 선생님이 되었다.

- 3 학교에서 규리가 한 일이나 겪은 일을 두 가지 고르시오. ()

- ① 음악 시간에 노래를 불렀다.
② 사회 시간에 발표 차례가 다가와서 걱정했다.
③ 음악 시간에 선생님께 피아노 연주 방법을 배웠다.
④ 사회 시간에 우리 지역의 발전 방향에 대해 토의했다.
⑤ 음악 시간에 민호에게 리코더 연주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 4 규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쓰시오.

• 불안한 마음 → ()

국어 활동

- 5 이야기에서 인물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찾아 ○표를 하시오.

- (1) 인물의 생김새를 떠올려 본다. ()
(2) 인물의 생각, 말이나 행동을 살펴본다. ()
(3) 인물이 한 일이나 겪은 일을 찾아본다. ()

6~7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튿날, 운동회에 나갈 선수를 뽑기로 했어요. 모두 들뜬 마음으로 선생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어요.

“제비뽑기로 선수를 뽑자. 누구나 한 경기씩 나갈 수 있도록 말아야.”

“말도 안 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이들은 투덜거리며 제비를 뽑았어요. 기찬이의 제비뽑기 순서가 다가왔어요. 기찬이는 ‘이어달리기’가 쓰인 쪽지를 뽑았어요. 울상이 된 기찬이를 보고 친구들이 몰려들었어요.

“안 봐도 질 게 뻔해!”

“어떡해! 이어달리기가 가장 점수가 높는데!”

6 기찬이가 ‘이어달리기’가 쓰인 쪽지를 뽑았을 때, 친구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

- ① 울상이 된 기찬이를 위로해 주었다.
- ② 기찬이가 이어달리기를 하게 되어 무척 좋아했다.
- ③ 가장 점수가 높은 이어달리기를 잘 해 보자고 말했다.
- ④ 이어달리기를 하는 다른 친구는 누구인지 찾아보았다.
- ⑤ 이어달리기 점수가 가장 높는데 질 게 뻔하다며 아무 기대를 하지 않았다.

서술형

7 ‘이어달리기’가 쓰인 쪽지를 뽑았을 때 기찬이의 마음은 어떠하였을지 쓰시오.

8 친구에게 사과하는 쪽지를 쓸 때 주의할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진심을 담아서 쓴다.
- ② 정성껏 바른 글씨로 쓴다.
- ③ 어떤 일이 있었는지 쓴다.
- ④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쓴다.
- ⑤ 장난처럼 말하듯이 재미있게 쓴다.

국어 활동

9 다음 중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우리 함께 그려 볼까?
- ② 네가 도와줘서 고마워.
- ③ 그렇게 하지 말겠잖니?
- ④ 네가 기뻐해 줘서 나도 기뻐.
- ⑤ 부탁을 들어주지 못해 내 마음이 아파.

10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쪽지를 쓰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은지 쓰시오.

(1)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	
(2) 전하고 싶은 마음	

서술형

- 1 자신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본 경험을 떠올려 쓰시오.

- 2 체육 시간에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진 친구에게 마음을 전하는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괜찮니?
- ② 다친 데는 없니?
- ③ 넘어져서 아프겠다.
- ④ 너 때문에 달리기에서 졌잖아!
- ⑤ 많이 아프면 내가 가방을 들어 줄게.

3~4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지금 안 일어나면 지각이야.”

엄마의 손이 이불을 걷어 냈다.

“아이참, 엄마, 알았다고요.”

나는 눈을 비비며 부스스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자, 졸음이 싹 달아났다. 아침밥을 먹는 등 마는 등 하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마음이 바빠져서 거의 뛰다시피 걸었다. 덕분에 1교시 시작하기 직전에 교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 수업이 모두 끝났다. 집으로 가는 길에 놀이터를 지나게 되었다.

“멍멍!” / 어디선가 강아지 소리가 들려왔다.

자세히 보니 옆집 수호네 엄마께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오셨다. 너무너무 반가웠다. 수호네 강아지는 하얀 털을 가진 조그만 강아지여서 내가 아주 귀여워한다. 나는 수호 엄마께 반갑게 인사한 뒤에 수호네 강아지의 하얀 털을 조심조심 쓰다듬어 주었다. 구름을 만지는 기분이 이런 기분일까?

- 3 이 글에서 인물이 한 일이나 겪은 일을 차례대로 골라 기호를 쓰시오.

- ㉠ 학교에 감.
- ㉡ 더 자고 싶은데 억지로 일어남.
- ㉢ 수호네 하얀 강아지의 털을 쓰다듬어 줌.

() → () → ()

- 4 이 글에서 인물의 마음 변화를 알맞게 연결한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속상한 마음 → 행복한 마음
- ② 불안한 마음 → 화나는 마음
- ③ 고마운 마음 → 행복한 마음
- ④ 행복한 마음 → 걱정하는 마음
- ⑤ 속상한 마음 → 자랑스러운 마음

- 5 다음은 이야기 속 인물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야기 속 인물이 () (이)나 겪은 일, 생각, 말이나 행동을 살펴보면 인물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6~7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기찬이는 눈을 질끈 감고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내달렸어요. 기찬이가 마지막 백군 선수보다 한발 앞서 나갔어요.

“기적이야! 우리가 이겼어!”

기찬이네 반 친구들이 신이 나서 외쳤어요.

“나기찬!”

“나기찬!”

“저기! 나기찬 좀 봐.”

그런데 기찬이가 한 바퀴를 더 도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이호가 휴지를 들고 험레벌떡 뛰어왔어요. 친구들은 그제야 이마를 탁 쳤어요.

“뭘야, 이긴 게 아니야?”

“그것도 한 바퀴나 차이 나게 진 거야?”

이호는 머리를 긁적이며 멧쩍게 웃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기찬이는 이호에게 배턴을 넘겨주었어요.

“너만 믿다가 졌잖아.”

기찬이는 괜히 웃음이 나왔어요.

6 이 이야기를 읽고 만든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쓰시오.

이호가 갑자기 자리를 비운 사이, 기찬이는 어떻게 행동했지?

7 이호에게 배턴을 넘겨주는 기찬이의 마음은 어떠하였겠습니까? ()

- ① 이호에게 고맙다.
- ② 반 친구들에게 창피하다.
- ③ 달리기에서 이겨서 기쁘다.
- ④ 다시는 달리를 하고 싶지 않다.
- ⑤ 최선을 다했으므로 결과와 상관없이 뿌듯하다.

8 다음 상황에서 주은이가 원호에게 사과하는 쪽지에 쓸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찾아 ○표를 하시오.

주은이가 원호와 딱지치기를 하다가 마음대로 되지 않자 원호에게 “다시 해!”, “집에 갈 거야!”와 같은 예의 없는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 (1) 원호가 잘못된 점 ()
- (2) 주은이와 원호에게 있었던 일 ()
- (3) 주은이가 원호에게 바라는 마음 ()

9~10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0월 넷째 주에 ‘마음을 전하는 우리 반’이라는 이름으로 각 반에서 행사를 합니다. ‘마음을 전하는 우리 반’은 자신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행사입니다. 이때에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 존경하는 마음, 미안한 마음 따위를 전할 수 있습니다. 전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예쁜 종이에 마음을 담아 손편지를 써서 전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9 ‘마음을 전하는 우리 반’이라는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각 반에서하기로 했다.
- ② 10월 넷째 주에하기로 했다.
- ③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이다.
- ④ 친구들에게만 마음을 전할 수 있다.
- ⑤ 손편지를 써서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

논술형

10 이 행사에 참여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생각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쪽지를 쓰시오.

1~2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앉아서 하는 피구’는 공 하나로 교실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놀이이다. 먼저 교실에 있는 책상을 모두 뒤로 밀어 가로로 긴 네모 모양으로 피구장을 만든다. 그다음에는 학급 친구 전체를 두 편으로 나누고 두 편 대표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먼저 공격할 쪽을 정한다.

규칙은 피구와 같지만 앉은 자세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을 굴리는 사람이나 피하는 사람 모두 앉은 자세로 해야 한다.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한쪽이라도 펴서 일어나는 자세가 되면 누구든 피구장 밖으로 나가야 한다. 상대를 맞힐 때에는 공을 바닥에 굴려서 맞혀야 한다. 공을 튀기거나 던져서 맞히면 맞은 사람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1 이 글에서 소개한 놀이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공을 던져서 상대를 맞힌다.
- ② 학급 친구 전체를 두 편으로 나눈다.
- ③ 놀이의 이름은 ‘앉아서 하는 피구’이다.
- ④ 공을 굴리는 사람이나 피하는 사람 모두 앉은 자세로 한다.
- ⑤ 교실에 있는 책상을 모두 뒤로 밀어 가로로 긴 네모 모양으로 피구장을 만든다.

논술형

2 이 글과 같이 자신이 읽은 글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 경험을 쓰시오.

3~4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국기에는 그 나라의 자연이 담겨 있어. 캐나다에는 설탕단풍 나무가 많이 자라. 설탕단풍 나무는 캐나다처럼 추운 날씨에 잘 자라거든.

가을에 붉은색으로 단풍이 들면 얼마나 고운지 몰라.

캐나다 사람들은 설탕단풍 나무에서 나오는 즙으로 달콤한 메이플시럽을 만들어 먹기도 해.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은 국기에 빨간 단풍잎을 그려 넣었어.

㉡ 국기에는 그 나라의 땅이 담겨 있어.

미국 국기에는 줄과 별이 참 많지? 도대체 몇 개인지 한번 세어 볼까? 줄이 열세 개, 별이 오십 개야. 미국이 처음 나라를 세울 때에는 주가 열세 개였대. 열세 개의 줄은 그걸 기념하는 거야.

3 국기에는 그 나라의 무엇무엇이 담겨 있다고 하였습니까? (,)

- ① 땅
- ② 자연
- ③ 문화
- ④ 전통
- ⑤ 대표 선수

4 ‘책 보여 주며 말하기’로 이 책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인상 깊은 부분을 말한다.
- ② 소개하고 싶은 부분을 말한다.
- ③ 인상 깊게 느낀 까닭을 말한다.
- ④ 글과 그림은 소개하지 않아도 된다.
- ⑤ 책 표지를 보여 주며 제목을 말한다.

5 다음은 책을 어떤 방법으로 소개하는 것일지 생각하여 쓰시오.

노랫말을 바꾸어 소개하기

()

국어 활동

6 다음 이야기를 읽고 책 보물 상자에 넣고 싶은 물건과 그것을 고른 까닭을 쓰시오.

- 가 “산꼭대기에 왜 열차가 있지?”
영롱이는 열차에 가까이 다가갔다.
- 나 “이 기차가 탐정 사무소라고요?”
영롱이는 아저씨의 모습을 다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잃어버린 물건, 도둑맞은 물건, 해결하지 못한 문제 등 어떤 일이든 해결해 줄 수 있어. 나는 명탐정 아인슈타인이니까.”

7~8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오늘은 학교에서 『바위나리와 아기별』이라는 책을 읽었다. 앞표지에 있는 바위나리와 아기별 그림이 무척 예뻐서 내용이 궁금했기 때문이다.
- 나 어느 날 밤, 아기별이 하늘에서 내려와 둘은 친구가 되었고, 바위나리와 아기별은 밤마다 만나 즐겁게 놀았다.
- 다 나는 이 책에서 바위나리를 그리워하며 올라가 빛을 잃은 아기별이 하늘 나라에서 쫓겨나 바다로 떨어진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왜냐하면 살아 있을 때에는 만나지 못하다가 죽은 뒤에야 같이 있을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슬펐기 때문이다.
- 라 이 책을 읽고 주위에 바위나리처럼 외로운 친구가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7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독서 감상문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책 내용이 나타나 있다.
- ② 책을 읽은 곳이 나타나 있다.
- ③ 인상 깊은 부분이 나타나 있다.
- ④ 책을 읽게 된 까닭이 나타나 있다.
- ⑤ 책을 읽은 뒤에 든 생각이나 느낌이 나타나 있다.

8 ‘내’가 『바위나리와 아기별』이라는 책을 읽게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

- ① 읽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 ② 친구가 읽어 보라고 했기 때문에
- ③ 별에 관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 ④ 학교 도서관에 책이 있었기 때문에
- ⑤ 앞표지에 있는 그림이 무척 예뻐서 내용이 궁금했기 때문에

국어 활동

9 다음 내용에 알맞은 독서 감상문의 특징을 찾아 표를 하시오.

책에서 읽은 타악기 가운데에서 마라카스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마라카스는 ‘마라카’라는 열매를 말려서 그 속에 말린 씨를 넣고 흔들어서 소리를 낸다. ‘마라카’라는 열매가 있다니 참 신기했다.

- (1) 인상 깊은 부분 ()
- (2) 책을 읽게 된 까닭 ()
- (3) 책을 읽은 뒤에 든 생각이나 느낌 ()

10 독서 감상문으로 교실을 꾸미는 방법 중 다음은 어떤 방법인지 쓰시오.



()

1-2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할아버지만큼 커다란 베짖이가 말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세상이 크게 변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작게 줄어들었음을 알았습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마당에 처음 보는 작은 열매가 있기에 먹어 보았을 뿐인데…….”

베짖이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마를 ‘탁’ 치며 말했습니다.

“그건 아마 ‘커졌다 작아졌다’ 마법 열매였을 거예요! 그걸 한 알 더 먹어야 본래 크기로 돌아올 수 있어요.”

㉡ 베짖이는 별빛으로 날을 날고, 꽃 빛으로 씨를 삼아 부지런히 베를 짰습니다. 베짖베짖 베틀이 분주히 움직일 때마다 베는 한 자 한 자 길어졌습니다.

㉢ 베짖이가 너무도 빠르게 베 한 필을 짜 내었을 뿐 아니라, 숨씨 또한 기가 막혔기 때문이죠.

“자, 할아버지. 이 베를 가지고 쥐들을 찾아가세요. 그러고는 ‘커졌다 작아졌다’ 마법 열매와 바꾸자고 하세요.”

1 할아버지가 작아진 까닭은 무엇입니까? ()

- ① 작아지는 별빛을 씹어서
- ② 베짖이가 준 베를 덮어서
- ③ 베짖이가 작아지라고 마법을 걸어서
- ④ ‘커졌다 작아졌다’ 마법 열매를 먹어서
- ⑤ 쥐들이 할아버지에게 작아지는 약을 줘서

2 다음은 이 이야기의 내용을 간추린 것입니다. 차례대로 기호를 쓰시오.

- ㉠ 이야기 할아버지가 갑자기 작아졌어요.
- ㉡ 이야기 할아버지가 마법 열매를 먹고 작아진 것을 안 뒤, 베짖이는 베를 짰어요.
- ㉢ 베짖이가 베를 다 짰 뒤, 할아버지에게 쥐들을 찾아가서 베와 마법 열매를 바꾸라고 하였어요.

() → () → ()

3-4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실 팔찌 만들기의 준비물은 매우 간단합니다. 서로 다른 색깔 털실 세 줄, 셀로판테이프만 있으면 됩니다.

㉡ 첫 번째, 서로 다른 색깔 실 세 가닥을 함께 잡고 매듭을 짓습니다. 실의 3~4센티미터를 남겨 두고 실 세 가닥을 한꺼번에 잡아 작은 원을 만듭니다.

㉢ ㉠, 셀로판테이프로 매듭 위쪽을 책상에 붙입니다.

㉣ ㉡ 실 세 가닥을 잡고 세 가닥 땅기를 합니다.

㉤ 네 번째, 땅은 실 끝 쪽에 매듭을 짓습니다.

㉥ 마지막으로, 양쪽 끝을 연결합니다.

3 이와 같은 글은 어떤 흐름에 주의하며 간추려야 합니까? ()

- ① 일 차례 ② 장소 변화
- ③ 사건 변화 ④ 이름 변화
- ⑤ 원인과 결과

4 ㉠, ㉡에 들어갈 차례를 나타내는 말은 무엇인지 쓰시오.

- (1) ㉠: ()
- (2) ㉡: ()

국어 활동

5 일하는 방법에 따라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을 바르게 말한 것에 ○표를 하시오.

- (1)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은 모두 같은 시간에 생긴 일이다. ()
- (2) 차례를 나타내는 말과 차례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
- (3) 원인이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인지 생각하여 결과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

논술형

6 장소 변화에 따라 사건이 달라지는 이야기는 어떻게 간추리면 좋을지 쓰시오.

7-8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오래전부터 기다려 오던 직업 체험학습을 가는 날이다. 학교에서 모두 함께 출발해 열 시에 직업 체험관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우리 반은 모뎀별로 흩어졌다.

㉡ 우리 모뎀은 가장 먼저 소품 설계관으로 출발했다. 소품 설계관은 작은 소품을 설계하고 직접 만들 수 있는 곳이다.

㉢ 디자이너 체험을 끝내자 거의 열한 시가 되었다. 우리는 제빵사 체험을 하려고 제빵 학원으로 갔다. 제빵 학원 앞에는 크게 '크림빵'이라고 적혀 있었다. 체험관 안으로 들어가자 체험관 선생님께서 밀가루를 나누어 주셨다. 체험관 선생님께서 알려 주시는 차례를 그대로 따라 해서 크림빵을 완성했다.

㉣ 점심시간이 끝난 오후 한 시, 소방서에서 병주가 가장 기대하던 소방관 체험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소방관 복장을 하고, 소방차를 타고 출동하고, 불이 난 곳에 물도 뿌렸다.

7 '내'가 다음 시간에 한 일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 (1) 열 시 • • ① 소방관 체험
- (2) 열한 시 • • ② 제빵사 체험
- (3) 한 시 • • ③ 직업 체험관 도착

8 장소 변화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학교 ② 오래전
 ③ 제빵 학원 ④ 직업 체험관
 ⑤ 소품 설계관

국어 활동

9 다음 이야기에서 시간을 알 수 있는 말을 찾고, 그 시간에 환이가 한 일을 쓰시오.

오후에 환이는 아빠를 따라 쿠리치바 시청에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청까지 가는 길에는 잘 정돈된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노래하듯 밝은 모습이었지요.

(1) 시간	
(2) 한 일	

10 다음 소개하는 글은 어떤 흐름으로 썼습니까? ()

괴산 지역 이름은 시간에 따라 변해 왔습니다. 고구려 때에는 '영근내군'이라고 불리다가, 신라 경덕왕 때 '괴양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뒤 고려 시대에는 '괴주'라고 불리다가, 조선 태종 때부터는 지금 이름인 '괴산'이라는 지명으로 불렸습니다.

- ① 장소 ② 사건
 ③ 일 차례 ④ 시간 흐름
 ⑤ 원인과 결과

- 6 글의 흐름에 따라 간추리기 위해 주의할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줄임 말을 사용한다.
 - ② 시간 표현을 사용한다.
 - ③ 중요한 부분을 메모한다.
 - ④ 이어 주는 말을 사용한다.
 - ⑤ 차례를 나타내는 말을 사용한다.

7-8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 체험학습 계획을 세울 때 민기가 “집안 어른들께 선물로 드릴 만한 물건을 만들면 좋겠어.”라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소품 설계관을 첫 번째 체험활동 장소로 정했다. 민기는 어머니께 드릴 머리 끈을 만들고, 나는 할아버지께 드릴 손수건을 만들기로 했다.
- ㉡ 디자이너 체험을 끝내자 거의 열한 시가 되었다. 우리는 제빵사 체험을 하려고 제빵 학원으로 갔다.
- ㉢ 점심시간이 끝난 오후 한 시, 소방서에서 병주가 가장 기대하던 소방관 체험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소방관 복장을 하고, 소방차를 타고 출동하고, 불이 난 곳에 물도 뿌렸다. 원래 소방관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체험해 보니 내 적성에도 잘 맞고 보람도 있어서 미래에 소방관이 되어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 7 이 글에는 어떤 흐름이 잘 나타나 있는지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
- ① 장소 변화
 - ② 시간 흐름
 - ③ 일하는 방법
 - ④ 원인과 결과
 - ⑤ 주장과 근거

- 8 서술형
‘나’는 소방관 체험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쓰시오.

9~10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괴산에는 사오랑 마을에서 산골 마을인 산막이 마을까지 연결되는 10리(4킬로미터)에 걸친 옛길이 있다. 이 옛길을 산책로로 만든 것이 지금의 산막이 옛길이다.

산막이 옛길은 주차장을 지나 오르막으로 시작한다. 오르막을 걷다 보면 차돌 바위 나무를 지나 소나무 동산에 이를 수 있다. 소나무 동산엔 40년이 넘는 소나무들이 숲을 이룬다. 소나무 동산에서는 괴산호를 바라볼 수 있다.

- 9 이 글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

- ㉠ 산막이 옛길의 변화를 시간 흐름대로 정리할 수 있다.
- ㉡ 산막이 옛길을 길을 따라 장소 변화대로 정리할 수 있다.
- ㉢ 산막이 옛길이 왜 변화하게 되었는지 원인과 결과로 정리할 수 있다.

()

- 10 이 글과 같이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 글을 쓰려고 할 때, 어떤 것을 소개할지 쓰시오.
()

1-2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투루는 꼬리를 한 번 실룩 움직일 뿐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안녕이라고 말했잖아. 투루!”

무틀라는 이번에는 아주 크게 소리쳤어요.

“그래서 어찌라고? 이 꼬맹이야! 감히 아침 식사 하는 나를 귀찮게 해?”

“투루, 그렇게 거만하게 굴 것까진 없잖아! 너는 몸집이 가장 크다고 네가 가장 힘이 센 줄 알지? 난 줄다리기를 하면 널 언제든 이길 수 있어!”

“네가? 너 같은 꼬맹이가? 흥, 푸우하하하!”

1 이 글에서 인물이 한 행동에 어울리는 성격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

(1) 투루에게 크게 소리를 치는 무틀라의 행동 . . . ① 자신감이 있다.

(2) 무틀라가 한 인사를 듣고 대답을 하지 않는 투루의 행동 . . . ②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듣지 않는다.

2 이 글의 인물이 한 말 가운데에서 다음의 표정, 몸짓, 말투가 어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

고개를 뒤로 젖히고 큰 목소리로 거들먹거리며

- ① “안녕이라고 말했잖아. 투루!”
- ② “그렇게 거만하게 굴 것까진 없잖아!”
- ③ “감히 아침 식사 하는 나를 귀찮게 해?”
- ④ “난 줄다리기를 하면 널 언제든 이길 수 있어!”
- ⑤ “너는 몸집이 가장 크다고 네가 가장 힘이 센 줄 알지?”

3-4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나그네: 뭐요? 문을 열어 달라고? 열어 주면 뛰쳐나와서 나를 잡아먹을 것이 아니요?

호랑이: 아닙니다. 제가 은혜를 모르고 그런 짓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앞발을 비비며 자꾸 절을 한다.)

나그네: ㉠허허, 알았소. 설마 거짓말이야 하겠소? 내가 이 귀찮은 문을 열어 주리다. 그 대신 약속을 꼭 지키시오.

호랑이: 네, 얼른 좀 열어 주십시오. 배가 고파서 눈이 빠질 지경입니다.

나그네가 문을 열자, 호랑이가 뛰쳐나와서 나그네를 잡아먹으려고 덤빈다.

3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쓰시오.

- 호랑이가 나그네에게 잡아먹지 않을 테니 구해 달라고 부탁했다.
- ()

4 ㉠을 소리 내어 읽을 때 나그네의 성격에 알맞은 말투를 찾아 번호를 쓰시오.

- ① 호랑이를 도와주려는 다정한 말투로
- ② 호랑이를 믿지 못해 의심하는 말투로
- ③ 호랑이를 도와주지 않으려고 무시하는 말투로

()

국어 활동

5 다음 글의 개구리들이 가졌을 마음과 알맞은 말투를 쓰시오.

농부: (개울가에 개구리들을 풀어 주며) 어서 들어가거라. 잘 살거라.

개구리들: (합창하며) 농부님, 고맙습니다! 농부님, 고맙습니다!

- (1) 마음: ()
- (2) 말투: ()

6~7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나그네: 내가 호랑이를 잡아먹으려 하는 게 아니라, 이 호랑이가 꾀짝에 갇혀 있었는데 내가 살려 주었어요.

토끼: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랑이하고 당신이 꾀짝 속에 갇혀 있었다고요?

나그네: 아니지요. 호랑이가 …….

호랑이: (답답하다는 듯이 화를 내며)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지? (꾀짝 속으로 들어가며) 이 꾀짝 속에 내가 이렇게 있었어. 내가 이렇게 갇혀 있었다는 말이야. 알았지?

토끼가 얼른 달려들어 문고리를 걸어 잠근다.

① 토끼: (웃으면서) 이제야 알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겠습니다. 호랑이님이 어떻게 이 꾀짝 속에 들어갔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럼 저는 바빠서 이만 가 보겠습니다.

6 호랑이는 왜 답답해했습니까? ()

- ① 꾀짝 속에 갇혀 있어서
- ② 꾀짝의 문고리가 고장 나서
- ③ 나그네가 토끼를 쫓아가지 못해서
- ④ 나그네가 토끼에게 말을 제대로 못해서
- ⑤ 토끼가 계속 나그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논술형

7 ①의 상황에서 토끼에게 어울리는 표정, 몸짓, 말투를 상상하여 쓰시오.

국어 활동

8 다음 글을 읽고 ‘눈’의 표정과 몸짓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 ○표를 하시오.

눈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나를 싫어한단 말이야? 나만 보면 모두 신이 나서 즐거워하는데……. 나만 내리면 세상이 다 깨끗하고 예뻐지는데…….’



(1) ()



(2) ()



(3) ()

9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토끼의 재판」 연극 발표회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서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에 맞게 차례대로 번호를 쓰시오.

- ① 연극 연습을 한다.
- ② 친구들과 함께 역할을 정한다.
- ③ 발표회에 필요한 소품을 준비한다.
- ④ 무대에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지 생각한다.
- ⑤ 극본에서 어떤 모듬이 어느 장면을 공연할지 정한다.

() → () → () → ()
→ ()

10 연극을 관람하는 자세를 생각하며,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연극을 관람하는 친구는 () (으)로 보아야 연극하는 친구가 힘이 난다.

()

1~2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걸 잡아. 저 덩불숲이 보이지? 밧줄의 한 쪽 끝을 저 뒤에다 두었어. 난 달려가서 그걸 잡을 거야. ㉠내가 당길 준비가 되면 휘파람을 불게. 이렇게. 휘이이이익!”

무틀라는 쿠부가 밧줄을 짝 물 때까지 숨죽이고 기다렸어요. 무틀라는 영양처럼 재빨리 덩불숲으로 뛰어갔어요.

무틀라는 꼭꼭 숨자마자 숨을 깊이깊이 들이마신 다음 있는 힘껏 휘파람을 불었어요. “휘이이이익!” 그러자 양쪽 끝에서 투루와 쿠부가 밧줄을 잡아당기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둘은 밧줄을 당기고 또 당겼어요. 먼저 코끼리 투루가 영차영차 끄끄 밧줄을 잡아당기자 하마 쿠부는 몸을 부르르 떨며 버텼어요. 그다음엔 하마 쿠부가 영차영차 끄끄 밧줄을 잡아당기자 코끼리 투루가 몸을 부르르 떨며 버텼어요. 무틀라는 너무 재미있어서 깔깔 웃느라 배가 다 아팠어요.

1 ㉠을 표현하는 표정, 말투, 몸짓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재미있어하는 말투로
- ② 힘들어하는 목소리로
- ③ 줄을 당기는 몸짓을 하며
- ④ 휘파람을 부는 몸짓을 하며
- ⑤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참는 표정으로

서술형

2 이 글에서 무틀라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인물의 행동을 쓰고, 인물의 성격을 짐작하여 쓰시오.

(1) 무틀라의 행동: _____

(2) 무틀라의 성격: _____

3~5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호랑이: 하하, 궤짝 속에서 한 약속을 궤짝 밖에 나와서도 지키라는 법이 어디 있어?

나그네: 조금 전에 은혜를 모를 리가 있겠느냐고 하면서 애걸복걸하지 않았소?

호랑이: 은혜 모르기는 사람이 더하지. 그러니까 사람은 보는 대로 잡아먹어도 괜찮아.

나그네: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소? 우리, 누가 옳은지 한번 물어보세.

호랑이: 좋아, 소나무에게 물어보자.

㉢ 소나무: 물론 호랑이가 옳지.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해 주는데도 나를 마구 꺾고 베어 버리기 때문이야. 호랑이야, 얼른 잡아먹어 버려라.

호랑이: 자, 어때? 내가 옳지?

3 나그네와 호랑이는 소나무에게 무엇을 물었습니까? ()

- ① 소나무는 어떻게 쓰이는가?
- ②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 ③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는가?
- ④ 맑은 공기를 어떻게 만드는가?
- ⑤ 호랑이와 나그네 중 누가 옳은가?

4 이 글에 나오는 인물에게 물어보기 놀이를 할 때 호랑이에게 묻고 싶은 것을 한 가지 쓰시오. ()

5 호랑이의 성격에 알맞은 말투에 ○표를 하시오.

- (1) 억울한 말투 ()
- (2) 빠르고 급한 말투 ()
- (3) 당당하고 뻔뻔한 말투 ()

6~8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호랑이: ㉠(답답하다는 듯이 화를 내며)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지? (궤짝 속으로 들어가며) 이 궤짝 속에 내가 이렇게 있었어. 내가 이렇게 갇혀 있었단 말이야. 알았지?

토끼가 얼른 달려들어 문고리를 걸어 잠근다.

토끼: (웃으면서) 이제야 알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겠습니다. 호랑이님이 어떻게 이 궤짝 속에 들어갔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럼 저는 바빠서 이만 가 보겠습니다.

나그네: (토끼를 쫓아가며) 토끼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6 대본에서 ㉠과 같은 () 부분이 하는 역할을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승연: 인물의 성격을 직접 설명하는 부분이야.
 우주: 인물이 직접 하는 말을 나타내는 부분이야.
 연서: 표정, 몸짓, 말투를 직접 알려 주는 부분이야.

()

7 토끼가 웃으며 사라진 까닭을 두 가지 고르시오. (,)

- ① 호랑이가 한 말을 이해했기 때문에
- ② 죄 없는 나그네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 ③ 나그네가 토끼에게 고맙다고 말했기 때문에
- ④ 호랑이와 나그네의 행동이 재미있었기 때문에
- ⑤ 호랑이가 자신의 궤에 속아 다시 궤짝 속에 갇혔기 때문에

논술형

8 이 글의 나그네에게 어울리는 표정, 몸짓, 말투를 상상하여 쓰시오.

9 우리 반 연극 발표회를 준비할 때 주의할 점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극본은 한 번만 소리 내어 연습한다.
- ② 무대에서 말을 주고받을 때에는 상대를 바라본다.
- ③ 인물의 표정, 몸짓, 말투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 ④ 다른 친구가 연습을 할 때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 ⑤ 혼자서 연극 장면 전체를 연습하고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지 않는다.

10 연극을 관람할 때 지켜야 할 예절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집중해서 본다.
- ②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 ③ 발표를 끝낸 친구에게 박수를 보낸다.
- ④ 다른 친구들이 발표할 때 연습하지 않는다.
- ⑤ 발표하고 있는 친구가 실수하면 바로 말해 준다.

정답과 해설

1. 작품을 보고 느낌을 나누어요

실전 단원 평가 | 국어 + 국어 활동 |

2~3쪽

1 ㉠ 2 ㉡, ㉢ 3 (1) ㉠

4 ㉣, ㉤ 5 예 놀랐다.

6 예 나라면 학교 친구와 언니, 선생님께 서운한 마음과 그 까닭을 이야기하고 자신에게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을 것이다.

7 부벨라, 지렁이

8 ㉠ 9 (1) ㉠ (2) ㉠

10 예 흐뭇한 표정으로

- 1 ㉠은 풀이 죽은 표정으로 몸을 움츠리고 있습니다.
- 2 표정, 몸짓, 말투에 주의하며 말하면 듣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더 잘 전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 3 장금이와 친구들에게 인사하는 장면이 들어가는 것이 어울립니다.
- 4 장금이와 처한 상황과 장금이의 마음을 생각하며 장금에게 어울리는 몸짓과 말투를 찾아봅니다.
- 5 인물의 표정, 몸짓, 말투를 통해 무척 놀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6 미미가 겪은 일을 보고 자신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봅니다.

채점 기준 인물의 말과 행동, 표정 등을 살펴보고 자신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상황에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7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은 부벨라와 지렁이입니다.
- 8 인물이 일을 겪는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생각해 보고, 인물에게 어울리는 표정, 몸짓, 말투를 찾아봅니다.
- 9 현장 체험학습 장소가 마음에 들 때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각각 어떤 표정, 몸짓, 말투로 말하면 좋을지 생각해 봅니다.
- 10 이웃 사람이 의좋은 형과 아우의 모습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으며 말하면 좋을지 생각해 봅니다.

실전 단원 평가 | 국어 |

4~5쪽

1 (1) ㉠ (2) ㉠

2 ㉢

3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로 말하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을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등

4 ㉠

5 (2) ×

6 예 웃는 표정으로 바나나를 내밀며 다정하게 말한다.

7 ㉢, ㉣

8 ㉤

9 예 활짝 웃으며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큰 소리로 외친다.

10 (1) 표정 등 (2) 몸짓 등

- 1 각각의 그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상황에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를 찾아봅니다.
- 2 미안하다고 말할 때에는 장난치지 말고 진지하게 말해야 합니다.
- 3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로 말하면 듣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더 잘 전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을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로 말하면 좋은 점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4 처음으로 수라간 상궁을 본 장금이의 마음에 알맞은 표정을 찾아봅니다.
- 5 장금이와 꾸중을 듣고 있는 상황이므로 활짝 웃는 표정을 짓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 6 미미의 마음을 짐작해 보고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를 씁니다.
- 7 인물의 표정, 몸짓, 말투에 주의하며 만화 영화를 보면 만화 영화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만화 영화를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 8 정원사가 허리를 꼳꼳하게 펴더니 똑바로 섰습니다.
- 9 정원사의 마음이 어떨지 짐작해 보고, 어울리는 표정, 몸짓, 말투를 생각하여 씁니다.

채점 기준 정원사의 말에 어울리는 표정, 몸짓, 말투를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0 '이야기 극장' 놀이를 할 때는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과 말투로 말하는지, 자연스러운 몸짓으로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2. 중심 생각을 찾아요

실전 단원 평가 | 국어 + 국어 활동 |

6~7쪽

1 ⑤

2 (1) 선생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에는 과학 실험을 하지 않습니다. 등

(2) 과학실에서는 절대 장난을 치면 안 됩니다. 등

3 ㉠ 과학 실험 안전 수칙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4 (3) ○ 5 제목 6 ㉡

7 ㉡ 8 수현 9 ㉡

10 ㉠ 옛날 사람들은 한복을 입었는데 오늘날은 양복을 입고 생활한다.

1 아는 내용이나 겪은 일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 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이 글에서 알려 주는 두 가지의 과학 실험 안전 수칙을 찾아 씁니다.

3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이나 경험,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을 비교해 새롭게 안 내용을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 봅니다.

채점 기준 글을 읽고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이나 새롭게 안 내용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4 (1) 밤은 제사상에서 빠질 수 없는 과일이라고 했습니다. (2) 정월 대보름에 먹는 딱딱한 과일을 부럼이라고 합니다.

5 글쓴이는 글 전체 내용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내용을 제목으로 정하기 때문에 글의 제목을 보면 무엇을 쓴 글인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6 글의 각 문단을 대표하는 중심 문장을 찾아보고, 글의 제목, 글에 있는 사진이나 그림을 보고 글쓴이가 글 전체에서 말하고 싶은 생각을 찾습니다.

7 '울서리'는 가을, '진눈깨비'는 겨울, '꽃샘바람'과 '소소리바람'은 봄과 관련 있는 토박이말입니다.

8 글의 중심 생각을 찾는 방법을 떠올려 중심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9 '얕다'와 뜻이 서로 반대인 낱말은 '서다'입니다.

10 글에 있는 그림을 보면 글쓴이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전 단원 평가 | 국어 |

8~9쪽

1 외발 싸움, 깨금발 싸움, 무릎 싸움

2 ㉠

3 ㉠ 닭싸움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하여 지어졌는지 알았다.

4 중심 문장 5 ㉡ 6 ㉡

7 날씨를 나타내는 토박이말을 많이 알고 씁시다. 등

8 ㉡ 9 ㉡

10 ㉠ 조선 시대 여자 한복을 더 조사하고 싶다.

1 닭싸움 놀이는 한 발로 서서 하므로 '외발 싸움', '깨금 발 싸움'이라고도 부르고, 무릎을 부딪쳐 싸운다고 해서 '무릎 싸움'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2 아는 내용이나 겪은 일과 관련지어 글을 읽으면 글의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이 글을 읽고 새롭게 안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채점 기준 글의 내용과 관련지어 새롭게 안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4 중심 생각을 찾을 때에는 각 문단을 대표하는 중심 문장을 찾아야 합니다.

5 ①은 문단 ㉠, ②는 문단 ㉡, ③은 문단 ㉢, ⑤는 문단 ㉤의 중심 문장에 해당합니다.

6 첫 문장이 문단 ㉠의 중심 문장입니다.

7 제목과 관련해 글쓴이의 생각이 무엇인지 정리하여 씁니다.

채점 기준 이 글의 제목과 관련해 글쓴이의 생각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8 '얕다'와 서로 뜻이 반대인 낱말은 '모르다'입니다.

오답 피하기

① 같다: '같다'와 서로 뜻이 반대인 낱말은 '다르다'입니다.

9 옛날에는 삼베, 모시, 무명, 비단 따위로 옷을 만들었고 오늘날에는 옛날처럼 자연에서 얻은 실로 옷감을 짜기도 하지만 공장에서 만든 합성 섬유에서 옷감을 더 많이 얻습니다.

10 옛날과 오늘날의 옷차림을 설명한 글을 읽고 나서 더 알고 싶은 내용이나 조사하고 싶은 내용을 떠올려 봅니다.

3. 자신의 경험을 글로 써요

실전 단원 평가 | 국어 + 국어 활동 |

10~11쪽

- 1 ①
 2 예 가족과 놀이 공원에 놀러 간 일
 3 ㉠, ㉡
 4 (1) 이번 가을에만 두v번째네.
 (2) 주혁이가v눈물이 그렇그런한 얼굴로 말했다.
 (3) 마음이 아팠다.v동생이 얼른 나왔으면 좋겠다.
 5 ㉡, ㉣ 6 ㉡
 7 (1) ㉡ (2) ㉢ (3) ㉠ (4) ㉣
 8 자신이 전하고자 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는 지 확인할 수 있다. 등
 9 (2) ○ 10 ㉢

- 방송국 체험을 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 자신이 겪은 일 가운데에서 기억에 남는 일을 떠올려 봅니다.
 - 기억에 남는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정리하며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 (1)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 사이는 띄어 씁니다. (2) 낱말과 낱말 사이는 띄어 씁니다. (3) 마침표(.) 뒤에 오는 말은 띄어 씁니다.
 - 띄어쓰기를 하면 전하고자 하는 뜻을 정확히 전할 수 있고, 글을 읽는 사람도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 인상 깊은 일로 글을 쓸 때에는 있었던 일을 자세히 써야 합니다.
 - (1)은 '어디에서', (2)는 '누가', (3)은 '언제', (4)는 '무엇을'에 해당합니다.
 - 글을 쓰고 고쳐쓰기를 하면 자신이 전하고자 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채점 기준** 고쳐쓰기를 하면 좋은 점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낱말과 낱말 사이는 띄어 쓰되, '이/가, 을/를, 은/는, 의'와 같은 말은 앞말에 붙여 씁니다.
 - 가장 먼저 지금까지 우리 반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실전 단원 평가 | 국어 |

12~13쪽

- 1 ① 2 ①
 3 겪은 일 중에서 어떤 일을 글로 쓸지 정한다. 등
 4 ㉡ 5 우정은 예쁘게 가꿀수록 좋다.
 6 (1) 예 가을에 과수원에서 사과를 따 본 일
 (2) 예 과수원에서 사과를 따 본 일이 처음이라 신기했기 때문이다.
 7 ㉤ 8 상진 9 ㉣
 10 (1) 언제 (2) 느낌

- 기억에 남는 일로 '친구들과 함께한 운동회'를 떠올려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기억에 남는 일을 정리한다고 해서 띄어쓰기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서연이가 자신이 경험한 일 가운데에서 무엇을 쓰지에 대해 어떻게 정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채점 기준 '무슨 일을 글로 쓸지 정한다.'와 같이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마침표(.)나 쉼표(,) 뒤에 오는 말은 띄어 씁니다.
- 낱말과 낱말 사이는 띄어 쓰되, '은/는'과 같은 말은 앞말에 붙여 씁니다.
- 일 년 동안 자신이 겪은 일 가운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떠올려 보고, 그 일을 고른 까닭을 씁니다.

채점 기준 일 년 동안 자신이 경험한 일 가운데에서 가장 인상 깊은 일과 그 일을 고른 까닭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제목은 글에서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지를 생각해서 정합니다.
- 어려운 낱말보다는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표현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 우리 반 소식지에는 일 년 동안 우리 반에서 있었던 일을 담아야 합니다. ㉣는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경험한 일이지만, 나머지 ㉠, ㉡, ㉢, ㉤는 모두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입니다.
- 자신이 맡은 사건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할 때에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도 좋습니다.

4. 감동을 나타내요

실전 단원 평가 | 국어 + 국어 활동 |

14~15쪽

- 1 감각적 표현 2 (2) ○ 3 ①
4 ①
5 (1) 꼬부랑 할머니 물바가지 되려다
 (2) 풀 베는 아저씨 낮이 되려다
6 느리게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 등
7 (1) 맨발로 걸을 때 발가락 사이로 살살 빠져나오는 촉촉한 풀잎
 (2) 할아버지 밭에서 나는 토마토 맛
8 강하 9 (1) 1 (2) 2 10 ①

- 1 대상에 대한 느낌을 보거나 듣는 것처럼 생생하게 표현한 것을 ‘감각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 2 (2)는 곰 인형을 ‘아기처럼 귀여운’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감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 3 말하는 이는 감기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4 ‘그래서’는 이어 주는 말로, 감기에 걸린 상태를 생생하게 나타내는 감각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5 이 노랫말에서는 초승달을 떠올린 느낌을 ‘꼬부랑 할머니 물바가지, 풀 베는 아저씨 낮’으로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 6 ‘굴질굴질’은 몸을 둔하게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낸 말입니다.
채점 기준 ‘느리게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 또는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과 같이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7 ‘나’는 피부의 느낌이나 맛으로 초록색과 붉은색을 각각 감각적으로 표현하여 블링크 아저씨에게 색깔을 알려 드렸습니다.
- 8 ‘나와 블링크 아저씨는 서로 색깔을 알려 주며 가가 워졌으므로 의미 있는 놀이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글에는 블링크 아저씨가 앞이 보이지 않아서 불편해한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 9 밤새 높은 파도와 무서운 바람에 시달린 사람들에게 이 선달은 지구가 동글다고 설명했습니다.
- 10 시는 이야기와 달리 짧은 글로 써야 합니다.

실전 단원 평가 | 국어 |

16~17쪽

- 1 ②, ④, ⑤ 2 ④
3 ‘느릿느릿’과 ‘까무룩’을 넣고 읽을 때 더 재미있고 느낌이 생생하게 살아난다. 등
4 ④, ⑤
5 예 추석날 밤에 할머니 댁에서 들은 풀벌레 소리가 지구가 숨 쉬는 소리 같았다.
6 ⑤
7 예 마지막으로 블링크 아저씨가 눈 수술을 받고 온 장면이 인상 깊었다.
8 ⑤ 9 (3) ×
10 (1) 예 구름 (2) 예 달콤한 솜사탕 같다.
 (3) 예 하늘에 두둥실 / 달콤한 솜사탕 같은 / 구름.

- 1 대상을 감각적 표현으로 나타내면 감각적 표현을 말하려고 대상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고, 대상의 느낌을 재미있고 생생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 2 감기에 걸려 몸에서 열이 나는 상태를 불덩이가 들어왔다고 감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 3 감각적 표현을 넣고 읽을 때 더 재미있고 실감 납니다.
채점 기준 감각적 표현을 빼고 읽을 때와 넣고 읽을 때 느낌의 차이를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4 발가락을 구부려서 두더지 발톱처럼 만들어 모래밭에 파고드는 모습, 지구가 천천히 움직이듯 모래가 움직이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 5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지구가 살아 있다고 생각했는지 씁니다.
- 6 에밀은 블링크 아저씨에게 세상 모든 색을 들려주고 싶어서 피아노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 7 이 글을 읽고 감동 깊었거나 인상 깊은 부분을 찾아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씁니다.
- 8 천둥소리를 하늘 나라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뛰쳐나가는 소리처럼 표현했습니다.
- 9 소리나 모양을 흉내 내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10 대상을 떠올린 느낌을 짧은 글로 표현합니다.
채점 기준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느낌을 노래하듯이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6. 마음을 담아 글을 써요

실전 단원 평가 | 국어 + 국어 활동 |

22~23쪽

- 1 (1) 와, 신난다! (2) 빨리 나아가야 해.
 2 ㉠ 3 ㉡, ㉢
 4 자랑스러운 마음 등 5 (2) ○ (3) ○
 6 ㉤
 7 달리기를 잘하지 못해서 마음이 무거웠을 것이다.
 등 8 ㉥ 9 ㉦
 10 (1) 예 수진 (2) 예 미안한 마음

- 그림 ㉡에서는 가을 현장 체험학습을 기뻐하는 마음이 느껴지고, 그림 ㉣에서는 아픈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마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알맞은 말을 찾아봅시다.
- ㉠은 자신이 읽은 글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 경험을 말한 것입니다.
- 규리는 사회 시간에는 발표 차례가 다가와서 걱정하였고, 음악 시간에는 민호에게 리코더 연주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 규리가 음악 시간에 한 일을 통해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짐작해 씁니다.
- 인물의 생김새를 떠올리는 것으로 그 인물의 마음을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
- ‘이어달리기’가 쓰인 쪽지를 뽑아 울상이 된 기찬이에게 물려든 친구들이 한 말을 살펴봅시다.
- 이어달리기 제비를 뽑은 기찬이는 달리기를 잘하지 못해서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채점 기준 달리기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까닭을 쓰고, ‘마음이 무거웠을 것이다’와 비슷한 마음을 떠올려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친구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장난처럼 나타내지 않아야 합니다.
- “그렇게 하지 말랬잖니?”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말이 아닙니다.
- 먼저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과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고, 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정리해서 씁니다.

실전 단원 평가 | 국어 |

24~25쪽

- 1 예 친구에게 심심할 때 같이 놀아 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2 ㉣ 3 ㉠, ㉡, ㉢ 4 ㉤
 5 한 일
 6 기찬이는 이호가 올 때까지 이어달리기를 끝까지 했어. 등
 7 ㉥ 8 (2) ○ (3) ○ 9 ㉦
 10 예 도현이에게
 며칠 전에 교실에서 조별 발표 때문에 싸운 적이 있었지? 그때 내가 내 말만 하고 너의 말을 다 듣지 않고 가 버려서 화났지? 정말 미안해. 이제는 상대의 말도 잘 들을게. 나를 용서해 줘.

-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떠올려 씁니다.

채점 기준 자신의 어떤 마음을 누구에게 전해 본 적이 있었는지 떠올려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나’는 아침에 더 자고 싶은데 억지로 일어나서 학교에 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옆집 수호네 강아지를 만나서 털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 ‘나’는 아침에 일어나기 싫는데 억지로 일어나서 속상한 마음이었다가 수업이 끝난 후에 수호네 하얀 강아지의 털을 쓰다듬어 줄 때는 행복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 기찬이는 묵묵히 이호가 올 때까지 이어달리기를 하였고, 이호가 오자 배턴을 넘겨주었습니다.
- 기찬이는 최선을 다해 달렸기 때문에 결과와 상관없이 뿌듯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 원호가 잘못된 점을 쓸 것이 아니라 주은이가 원호에게 잘못된 점을 솔직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 ‘마음을 전하는 우리 반’ 행사에서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마음을 전하고 싶은 상대를 떠올려 전하고 싶은 마음을 자세하게 씁니다.

채점 기준 있었던 일과 그때의 기분을 진심을 담아 부드럽게 쓰고, 앞으로 자신의 다짐 등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7. 글을 읽고 소개해요

실전 단원 평가 | 국어 + 국어 활동 |

26~27쪽

- 1 ①
 2 달팽이 놀이를 하는 방법을 읽고 친구들에게 소개해서 재미있게 한 적이 있다. 등
 3 ①, ② 4 ④
 5 노랫말을 책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바꾸어 부른 것이다. 등
 6 예 열차 / 탐정 사무소가 열차에 있다는 게 신기하기 때문이다. 7 ② 8 ⑤
 9 (1) ○ 10 나뭇잎 모양으로 책 나무 환경판을 만들어 꾸미기 등

- 1 상대를 맞힐 때에는 공을 바닥에 굴려서 맞혀야 하는 것이 놀이의 규칙입니다.
 2 자신이 읽은 글이나 책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 경험을 떠올려 씁니다.

채점 기준 자신이 읽은 글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 경험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3 글 ㉠에서는 그 나라의 자연이, 글 ㉡에서는 그 나라의 땅이 담겨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책의 앞표지나 뒷표지에 나와 있는 글과 그림을 소개해야 합니다.
 5 ‘노랫말을 바꾸어 소개하기’는 노랫말을 책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바꾸어 부르는 방법입니다.
 6 이 이야기는 탐정 사무소가 있는 열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7 이 글에 책을 읽은 곳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독서 감상문에 책을 읽은 장소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글에는 책을 읽은 까닭, 책 내용, 인상 깊은 부분, 책을 읽은 뒤에 든 생각이나 느낌이 나타나 있습니다.
 8 ‘나’는 앞표지에 있는 바위나리와 아기별 그림이 무척 예뻐서 궁금한 마음에 책을 읽어 보게 되었습니다.
 9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을 썼으므로 인상 깊은 부분을 쓰는 독서 감상문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10 나뭇잎 모양의 독서 감상문으로 책 나무 환경판을 만들어 꾸민 것입니다.

실전 단원 평가 | 국어 |

28~29쪽

- 1 (1) × 2 선미 3 ②
 4 태극 문양은 조화로운 우주를 뜻하고, 네 모서리의 사괘는 하늘, 땅, 물, 불을 나타낸다. 등
 5 ③ 6 독서 감상문
 7 (1) ① (2) ② 8 ⑤
 9 (1) 예 아픈 사람을 돌보다. (2) 다쳤거나 앓고 있는 환자나 노약자를 보살피고 돌보다.
 10 ②

- 1 친구들이 앉을 의자를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은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공이 하나 필요합니다.
 2 현민이와 효영이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해 본 경험을 말했습니다.
 3 글을 읽고 친구들과 나누었다고 해서 친구의 비밀을 모두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태극기의 태극 문양은 조화로운 우주를 뜻하고, 네 모서리의 사괘는 하늘, 땅, 물, 불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채점 기준 태극 문양은 조화로운 우주를 뜻하고, 네 모서리는 하늘, 땅, 물, 불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5 책을 읽고 기억에 남는 문장을 책갈피를 이용하여 소개하는 것은 ‘책갈피를 만들어 소개하기’입니다.
 6 독서 감상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7 글 ㉠의 내용은 책의 줄거리에 해당하고, 글 ㉡의 내용은 인상 깊은 부분에 해당합니다.
 8 독서 감상문은 보통 ‘책을 읽게 된 까닭 → 책 내용 → 인상 깊은 부분 → 책을 읽은 뒤에 든 생각이나 느낌’ 순서로 씁니다.
 9 ‘간호하다’의 뜻을 짐작해서 쓰고, 짐작한 뜻이 맞는지 국어사전에서 정확한 뜻을 찾아 써 봅니다.

채점 기준 (1)에 글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간호하다’의 뜻을 짐작하여 쓰고, (2)에 국어사전에서 찾은 뜻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0 독서 감상문에 책의 내용을 쓸 때에는 중요한 내용이나 사건을 골라 써야 합니다.

8. 글의 흐름을 생각해요

실전 단원 평가 | 국어 + 국어 활동 |

30~31쪽

- 1 ㉔ 2 ㉑, ㉒, ㉓ 3 ㉑
 4 (1) 두 번째 (2) 세 번째 5 (2) ㉑
 6 ㉑ 이동한 장소와 각 장소에서 겪은 일을 중심으로 간추린다.
 7 (1) ㉑ (2) ㉒ (3) ㉑ 8 ㉒
 9 (1) 오후 (2) 쿠리치바 시청에 갔다. 등
 10 ㉔

- 베짱이는 할아버지에게 ‘커졌다 작아졌다’ 마법 열매를 먹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할아버지가 작아진 것을 보고 베짱이가 베를 짠 뒤, 그 베를 쥐들이 가지고 있는 마법 열매와 바꾸라고 하였습니다.
- 실 팔찌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 주는 글로, 차례를 알려 주는 낱말에 주의하며 간추려야 합니다.
- ‘첫 번째’라는 차례를 나타내는 말이 나와 있으므로, 그다음에는 ‘두 번째’, ‘세 번째’라는 말이 차례대로 나와야 합니다.
- 일하는 방법에 따라 내용을 파악할 때에는 첫 번째, 두 번째와 같이 차례를 나타내는 말과, 차례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찾아 글의 내용을 간추립니다.
-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하면 쉽게 간추릴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장소 변화에 따라 그 장소에서 일어난 일(사건)을 중심으로 간추린다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글쓴이는 오전에는 소품 설계관과 제빵 학원을 방문해서 디자이너 체험과 제빵사 체험을 했고, 오후에는 소방관 체험을 했습니다.
- 이 글에서 ‘열 시’, ‘열한 시’, ‘한 시’는 시간 변화를 알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 이 글에서 환이는 오후에 아빠를 따라 쿠리치바 시청에 갔습니다.
- ‘괴산’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시간 차례대로 썼습니다.

실전 단원 평가 | 국어 |

32~33쪽

- 1 ㉑
 2 ㉑ 베짱이가 베를 얼마나 잘 짜는지를 시로 썼을 것 같다.
 3 ㉓ 4 정해져 있지 않다 5 (3) ㉑
 6 ㉑ 7 ㉑, ㉒
 8 적성에 잘 맞고 보람도 있어서 미래에 소방관이 되어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등
 9 ㉒
 10 ㉑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소개하고 싶다.

- ㉑에는 ‘마법 열매를 먹은 뒤’, ㉓에는 ‘다음 날 밤’이라는 시간을 알 수 있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 할아버지는 베짱이의 부탁대로 베짱이를 칭찬하는 내용의 시를 썼을 것입니다.

채점 기준 베짱이가 일을 열심히 하고 베를 잘 짠다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두 배로 먹는다고 감기약의 효과가 두 배가 되지는 않고, 오히려 몸에 부담만 된다고 하였습니다.
- 일할 때 주의할 점이나 도구를 설명할 때에는 차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고인돌 박물관, 동림 저수지 야생 동식물 보호 구역 등 장소 변화가 나타나 있습니다.
- 글의 내용을 간략하게 간추릴 필요는 있지만, 줄임말을 사용하는 것은 알맞지 않습니다.
- 시간 흐름을 알 수 있는 부분과 장소 변화를 알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어, 시간과 장소의 흐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 원래 소방관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체험해 보니 적성에도 잘 맞고 보람도 있어서 미래에 소방관이 되어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채점 기준 적성에 잘 맞고 보람이 있었다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이 글은 산막이 옛길을 장소 변화의 흐름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자신이 사는 지역의 자랑거리를 생각해서 씁니다.

9. 작품 속 인물이 되어

실전 단원 평가 | 국어 + 국어 활동 |

34~35쪽

1 (1) ① (2) ② 2 ③

3 나그네가 호랑이를 궤짝에서 꺼내 주자 호랑이는 나그네를 잡아먹으려고 했다. 등

4 ①

5 (1) 예 고마운 마음 (2) 예 밝고 희망적인 말투

6 ⑤

7 예 재빨리 자물쇠를 잠그는 몸짓을 하고, 웃는 표정을 지으며 기쁜 말투로 말한다.

8 (2) ○ 9 ⑤, ③, ②, ④, ①

10 진지한 자세 등

1 무틀라는 자신감이 있는 인물이고, 투루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듣지 않는 인물입니다.

2 ③의 투루의 말은 고개를 뒤로 젖히고 큰 목소리로 거들먹거리며 읽는 것이 어울립니다.

3 호랑이는 궤짝에서 나오자마자 자신을 구해 준 나그네를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4 나그네가 호랑이의 부탁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남을 잘 돕는 성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5 개구리들은 농부에게 고마워하고 있고, 개울에 돌아가게 되었으니 밝고 희망적인 말투가 어울립니다.

6 토끼가 나그네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해 답답해하던 호랑이는 화를 내며 스스로 궤짝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7 토끼는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 기쁘면서도 위험한 순간이므로 빠르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다시 궤짝에 갇힌 후에는 웃는 표정과 기쁜 말투로 말했을 것입니다.

채점 기준 토끼의 성격과 글의 상황을 생각하여 토끼에게 어울리는 표정, 몸짓, 말투를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8 ‘눈’은 다른 이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사실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9 ‘⑤ → ③ → ② → ④ → ①’의 차례로 연극 발표회를 준비합니다.

10 관람하는 친구가 진지하게 보아야 연극을 하는 친구들이 힘이 나서 공연을 잘할 수 있습니다.

실전 단원 평가 | 국어 |

36~37쪽

1 ②

2 (1) 무틀라는 덩불숲에 숨어 투루와 쿠부가 줄다리기는 것을 보았다. 등

(2) 피가 많다. 등

3 ⑤

4 예 궤짝에서 나오자마자 그렇게 마음을 바꾸는 것은 너무나 거 아닌가요?

5 (3) ○ 6 연서 7 ②, ⑤

8 예 토끼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나그네는 기쁜 표정으로 토끼를 쫓아가며 즐거운 말투로 말할 것이다. 9 ② 10 ⑤

1 무틀라는 투루와 쿠부를 골려 주게 되어 무척 즐거운 마음이지만 그것을 들키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2 투루와 쿠부가 줄다리를 하게 만든 무틀라의 행동에서 인물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이 글에 나타난 무틀라의 행동과 그의 성격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3 글 ㉠에서 알 수 있습니다.

4 호랑이가 한 말이나 그의 행동에 대해 궁금한 점을 떠올려 물어봅니다.

5 호랑이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도 당당한 것으로 보아 뻔뻔한 성격입니다.

6 대본의 () 부분은 표정, 몸짓, 말투를 직접 알려 주는 부분입니다.

7 토끼는 호랑이가 자신의 궤에 속아 다시 궤짝 속에 갇힌 것이 우습고, 죄 없는 나그네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웃으며 떠난 것입니다.

8 나그네는 토끼 덕분에 목숨을 구하게 되어 기쁘고, 토끼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채점 기준 토끼에게 고마워하는 나그네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표정, 몸짓, 말투를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9 무대에 서는 연습을 할 때에는 상대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10 친구의 실수를 바로 말해 준다면 그 친구는 속상할 것이고, 연극이 계속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